신상품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시리즈-8)

- 잔털뿐 아니라 굵기도 더욱 균일한 면사를 개발 -

구라보에서는 “실에 잔털이 있기 때문에 잔털이 있는 실로 짠 직물들이 잔털에 가려져서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잔털이 적으면 실의 품질을 분명히 들어내므로 보통은 천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잔털을 적게 하면서 천이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면 그만치 실의 굵기에 대한 균제도(均齊度)가 상당히 좋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잔털이 적은 실”의 방적을 개발하고있는 공장에서 새로운 실을 뽑은 후 물성을 측정하면 잔털이 적고 균제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도 직물을 짜보면 직물의 품위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실을 뽑아 직물로 짜서 품질을 확인해 보는 작업을 수없이 되풀이하였다. 특히 편성포의 경우에는 더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균제도가 좋은 실”의 방적기술을 확립하여 특허 출원하게 되었다.

금년 4월에 구라보는 이 특허 기술로 만든 잔털이 아주 적은 면사를 “클리어 · 스핀(Clear · spin)”상표로 발표하였다. 이 면사 개발을 담당하였던 공장에서는 정방기 5대(2,400추)를 개조하여 “클리어 · 스핀” 면사를 방적하고 있다.

도요보의 텍스타일 상품개발센터에서도 “면사의 잔털만을 적게 하면 실 굵기 변동이 눈에 잘 뜨이게 되고, 실이나 직물의 품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실을 이루고 있는 섬유의 배향도(配向度)를 높이기 위하여, 연조에서 정방에 이르기까지 공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개선하여 만

들어 낸 “잔털이 적으면서도 굵기도 고른 면사”를 “프리모 · 파인”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에 발표하였다.